

악바리 박주현도 결국 눈물…복싱 도전 '무쇠탈녀단2'

등록 2025.06.27 14:28:19



[서울=뉴시스] tvN 예능 프로그램 '무쇠탈녀단2' (사진=tvN) 2025. 06. 27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전수민 인턴 기자 = 유이·금새록·박주현·설인아가 쇠 맛 예능 '무쇠탈녀단2'로 돌아온다. 철인 3중 경기에 이어 이번엔 복싱에 도전한다.

tvN은 27일 tvN Joy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.

영상 속 유이는 1대1 대결에 나선다. 링 안에 선 유이를 지켜보던 박주현은 이내 눈물을 보였다. 네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며 복싱에 도전한다.

금새록은 "못 하는 건 없다"고 복싱에 기대감을 표현한다. 설인아도 제작진에게 "빨리 배우고 싶다"며 자신감을 내비친다. 한편 유이는 "생각도 못 했다"며 오히려 불안해한다.

하지만 유이는 강철 체력을 보여주며 운동 DNA를 고스란히 증명한다. 박주현도 악바리 근성을 장착해 지쳐도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.

설인아는 완벽한 스텝과 펀치로 탄성을 자아낸다. 단장으로 함께하는 전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은 그 모습을 보고 "그냥 선수다"라고 인정한다.

'무죄소녀단1'에서 진서연·유이·설인아·박주현은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다. 두 번째 시즌에는 배우 진서연 대신 금새록이 함께한다.

'무죄소녀단2'는 다음 달 11일 tvN에서 첫 방송 예정이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minnie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